

기고

‘약물 운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도로 위 흉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크게 높아 졌지만 그 이면에서 또 하나의 위험이 조용히 확산 되고 있다. 바로 ‘약물 운전’이다 이는 술이 아닌 약물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이고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소이다.

현실을 결코 가림지 않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사고와 적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 체계와 사회적 인식은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처벌약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책임 의식이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 운전자’가 된다. 약물의 영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이다.

약물 운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도로 위의 흉기’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그 위험성을 직시하고 단속과 예방 인식개선을 통해 근절에 나서야 할 때 이다. 우리의 작은 경각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격려처럼 맑고 고운 오아시스는 없을 것이다. 삶의 나락으로 깊숙이 추락하는 사람들도 격려를 받으면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급변해가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만큼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별로 크지 않은 지구. 곳곳에서 전쟁, 지진, 화산폭발 등으로 지구 표면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다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더욱 지구를 망가뜨려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투쟁 적이 뒹군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해진다.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루돌프 드레이커스는 “식물의 성장을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과 같이 어린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다. 어린이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격려해줘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격려처럼 맑고 고운 오아시스는 없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현실은 조금만 잘못해도 나무라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것도 잘못된 부분을 꼭꼭 짚어서. 모든 것을 성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어른도 안락하지 못하면서, 때문에 잘못을 조금 했더라도 가능하면 격려의 방법을 활용하자. 격려는 용기와 희망, 새로운 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초기경험에서 벌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진취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창조적 삶을 이뤄지겠는가. 이는 곧 그 자신은 물론 가족과 공동체를 침체하게 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성애’

이 있다. 때문에 자꾸 잘못만 지적당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잘못만 저지르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그것이 낙인이 되어 그렇게 돼가는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 되어있는 자동조종장치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잘못했다라도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더라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어쩌면 이번의 실수가 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을 반성교사 삼아 다음에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격려해준다면 어떨까. 아마도 다음 번에는 실수보다는 제대로 된 완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격려가 있는 지지적 환경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기를 죽이는 위협적 환경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곧 낙담과 두려움만 안겨주게 된다. 결국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를 비롯해 어른에 이르기까지 격려의 선순환구조를 형성해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낙담의 악순환구조는 인간 개개인은 물론 그 집단과 국가사회까지 좀먹어버리기 때문이다. 며칠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순조롭게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음을 보여줬다.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로 이끄는 아르테미스II가 활약한 모습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경이로운 지구의 모습과 함께 인류를 향한 메시지도 전해 왔다. 활약한 지구 사진 4장의 공개를 통해서. 필자가 보기에 아르테미스II가 보내온 지구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한편의 수채화 같았다. 경이적이었다. 그리고 역사적 순간이었다. 앞으로 더더욱 상호 간에 격려해주면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피워가면 어떨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진화하는 신종 스캠, ‘아는 만큼’ 보이고 ‘어서 끊는’만큼 안전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증가하며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의 욕망과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신종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유행하는 사기 유형별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투자리딩방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까짜 거래소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식 검증된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를 울리는 대리구매 사기 ‘일명 노쇼’다.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한 뒤 특정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대리 결제나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안전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결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팀미션 부업 사기이다. 광고 시청 등 간단한 임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처음에는 소액을 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익 미션 참여를 빌미로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한다. 과도한 수익 약속과 가입비·위약금·선납수수료 입금 요구사 차단해야 한다. 넷째,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이다. SNS에서 외국 군인·의사·사업가를 사칭해 호감을 얻은 뒤 항공료나 통관비 등을 요

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사랑을 고백하거나 해외 거주자라며 만남을 미루고 투자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급한 마음’과 ‘이득을 보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즉시 ‘어서 끊는 것’이다.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김일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오늘의 운세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음력 2월 19일)

Grid of horoscope entries for various zodiac signs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website, email, and phone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 space-themed background with an astronaut, the title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and dates '2026.5.2. (토) - 5.5. (화)'.